

이렇게 들었다

지역 이기주의

“이익에만 집착하지 말라”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였다. 어느 날 사소한 일로 대중들이 다투게 되었다. 부처님께 서는 대중 가운데서 다투는 것은 꾸짖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대중을 향해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어리석은 마음으로 탐욕을 일으키고 성내고 다투어 서로 미워하고 혼란에 빠지느냐. 그것은 마치 어둠에서 나왔다가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번소에서 나와 다시 번소로 들어가는 것이며, 피로써 피를 씻으며, 악을 버렸다가 다시 악에 빠지는 것과 같느니라. 어찌 그 많은 생각 가운데 탐욕하는 생각, 미워하는 생각, 해치려는 생각이 매달리느냐. 이 세상에 집착하는 것치고 죄가 되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잡야합경)

■대개 이익이라는 것은 사람을 나쁜 곳으로 떨어뜨린다.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 이익에만 매달리면 오히려 어떤 것도 성취하지 못하게 된다 (중입야합경)

서울시가 2004년까지 서초구와 강남구 일대에 5만 평 규모의 화장장 건립을 추진하다가 해당 구와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지난달 말로 예정됐던 부지선정이 연기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0%가 화장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시의 화장률도 50%를 넘어섰고, 화장을 전통 장례법으로 삼아온 불교뿐만 아니라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등 다른 종교단체들도 화장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화장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 장례문화로 정착돼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화장시설이나 납골시설은 터무니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각 자치단체와 종교단체가 앞장서 시설 확충에 나서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중 하나는 다른 어떤 지역 이기주의이다.

지역 이기주의는 사실상 개인의 이기심과 맞닿아 있다. 지난해 국정홍보처가 성인남녀 1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4%가 집단 이기주의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중 44%가 자신이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집단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마디로 남의 이기주의는 안되고 내 이기주의는 된다. 이 이중적인 가치관이 우리 사회 저변에 깔려 있는 셈이다. 강남구의 반대논리도 이와 다르지 않다.

부처님께서 이기심을 버리기 위해서는 집착을 버려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자(自)와 타(他)의 상대성을 강조하지 않는 이기심이야말로 재앙의 근본이라고 강조하셨다. 자기의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소아적 발상은 가장 비민주적인 독선에 불과할 뿐이다.

화장문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자 우리 스스로가 선택한 길이다. 그렇다면 화장장 건립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화장장 건립 반대가 허공을 향해 침을 뱉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일은 아닌지 강남구는 곰곰이 생각해볼아야 한다.

한영우 기자

‘장애인과 함께’ 거부하는 사회

블자 세상보기

우리는 선진이라는 말에 묘한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선진국을 닮으려고 애를 쓴다. 사실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선진국 흉내를 낼 수 있다. 그래서 경제 성장을 최선의 모토로 삼고,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사람이 영웅이 되는 사회가 되었다.

하지만 선진국의 잣대가 경제 수준만은 아니다. 진정한 선진국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선진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선진 시민이 살고 있는 나라가 바로 선진국인 것이다.

선진시민과 우리가 다른 점은 무엇일까? 손가락 하나 밖에 움직이지 못하는 호킹 박사가 세계적인 천체물리학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영국 사람들의 생각이 깨어있었기 때문이다. 호킹 박사가 연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주고 지원해주었기 때문에 탁월한 능력의 인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2001 프로야구 대회에서 시구를 한 애덤 킹의 경우도 사실은 우리의 치부를 드러낸 부끄러운 사건이었다. 킹은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다. 우리가 버린 아이를 미국의 양부모가 데리고 갔는데 킹의 얼굴을 보자 그를 얼마나 잘 키웠는지 알 수 있었다. 킹의 티없는 맑은 미소는 우리 한국 사람들을 향해 “바로”라고 외치는 절규처럼 느껴졌다.

애덤 킹의 밝은미소

스티븐 호킹의 성공

한국에선 왜 불가능

태어난 아기가 장애인이라고 버리는 일은 비일비재하고 자기 자신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목졸라 죽이는 사건도 최근 연달아 발생했다.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까지 무자비할 수 있는지 한 번 진지하게 반성해볼 일이다.

우리는 한때 고아 수를 1위국이었다. 국내 입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

문인데 요즘 들어 국내 입양이 조금씩 활성화되는 조짐이 보이고는 있지만 장애인 입양되는 경우는 전무하다시피 하고 있다. 그래서 장애인은 국내에서 살 수 있는 기회마저 빼앗기고 외국으로 추방당하고 있다. 애덤 킹도 그중의 하나인데 그의 양부모는 한국의 장애아동을 4명이나 입양하여 키우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정서를 이해하지 못해 미친 짓이라고 단정 짓는다. 하지만 그 미친 짓이 바로 선진국식이 아니면 흉내도 낼 수 없는 위대성이

얼마 전 오세훈박사의 작가 오토다케가 결혼한 소식이 화제가 되었다. 오토다케의 결혼은 당연한 일인데 우리는 그것을 특별한 사건으로 보고 있다. 일반인에게는 당연한 일이 장애인에게는



방귀희
숏대문학 발행인
방송작가

특별한 일이 되는 것이 바로 후진적인 사고 발상이다. 오토다케나 애덤 킹 그리고 스티븐 호킹 같은 성공이 우리나라에서는 왜 불가능한지 이제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초급단계이면 우리는 고급의 장애인복지를 말한다. 그래서 이중적인 모순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장애인과 함께 사는 사회를 부르짖고 있지만 장애인과 함께 살기를 거부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사회제도도 달라진 것이 아무 것도 없다.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이라고 정해놓았지만 장애인들은 오히려 이 날이 더욱 슬프다.

열린마당

방생의 의미와 역할

“생태복원 차원 방생활용”

문태영 <고신대 교수·생명과학과>



근래에 무분별하게 상업화되거나 생태적으로 무지한 방생으로 인해 생태계 파괴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어 종교와 과학간의 의견 불일치가 생겨났다. 따라서 방생의 원래 취지에 합치되며 생태계의 파괴를 야기하지 않는 과학적인 방생방법 연구와 함께 이미 파괴된 생태계를 회복시키는 복원생태학적 차원에서의 방생이 시급한 시점이다.

생태학적 측면에서 방생은 한 지역생태계에 생물을 추가 즉, 도입하는 실제적인 인간간섭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국내에서 행해진 전반적인 방생의 형태를 고려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시기에 적당한 종을 적합한 장소에 방생하는 것이다. 현재 불교종단을 자체에서도 인정할 만큼 특히 심각한 것은 하천이나 호수 등에 물고기를 무분별하게 방생하는 것인데 어디에 어떤 종이 얼마나 방생되었는지 확실히 알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이 문제는 안정된 생태적인 먹이사슬의 질서를 파괴하고 그 결과 하천의 오염을 촉진한다. 따라서 생태계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우선 방생에 적합한 지역, 종, 시기 등의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생물기록센터나 생물자원보존관 등이 절실하다. 또한 보존생물학적으로 방생이 바람직하게 적용될 수 있는 한 유형은 멸종위기에 있는 종을 인위적으로 증식시켜 재도입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 만약 종의 멸종요인이 외적인 것이었다면 그 요인을 제거 또는 조절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이와 같이 방생은 외적인 요인에 의해 종이 줄어들어 그 생태적 기능이 원할치 못한 곳에서 실시된다면 최상의 생태계 회복효과를 거둘 수 있다.

방생의 과학적인 활용은 종교와 사회와 국가가 과학적인 기반에서 일체가 되어 시도하는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를 볼 수 없는 국가적인 생태계 복원실험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방생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생연구관리위원회 또는 그에 준하는 사회적 조직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자연으로 방생범위 확대”

정천구 <영산대 교수·국제학부>



방생은 불교의 교리와 수행에 있어서 자비라는 핵심적인 가르침을 반영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인간 뿐 아니라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이를 도와주려는 자비심에서 비롯된 방생은 여러 경전에서 불살생의 계율과 함께 불제자가 행해야 할 실천 덕목으로 적극 권장되고 있다.

죽어가는 산 물고기와 짐승을 놓아 보내는 의식으로 발전한 방생은 인도의 아쇼카 대왕시대부터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래되면서 연등회, 팔관회 등 국가적 규모의 불교의식과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방생의식은 차츰 원래의 뜻을 저버리고 방생이라는 행위에만 집착함으로써 여러 문제를 야기시키기에 이르렀다. 오늘날의 불교 방생은 기복적 목적만을 생각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고려없이 전통사회의 행동양식과 의식만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현재의 방생 행위에 문제가 있더라도 방생의 정신과 사상은 오히려 자연보호, 생태계 보전을 위한 근본적 인식전환을 촉구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선양되고 장려되어야 한다. 고쳐야 할 것은 방생의 방법이다. 근본정신에 어긋나는 방생 형태를 지양하고 방생의 실제적 결과를 고려한 방생이 이루어져야 하며 현대 사회에 적합한 방생 형태를 개발해야 한다. 이제까지의 방생이 물고기의 하천 방생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다는 것을 고려할 때 하천 오염을 제거하기 위한 하천 주변 정리, 오염 정화, 하천 살리기 등의 활동을 새로운 형태의 방생 행위로 방생 의식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방생의 대상을 새, 나무, 숲, 자연으로 확대하는 것이고 방생의 방법도 실려주기, 치료해 주기, 먹이 주기, 환경정소 등으로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집단적 방생의식 경우 환경전문가와 환경단체 그리고 행정당국과의 사전논의를 통해 방생 행위가 가져올 결과를 신중히 고려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생명사랑운동으로 승화”

김용태 <신라대 교수·국문학>



불교에서는 일찍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금강명경에 근거하여 살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자비심을 증장시키는 뜻으로 방생을 권장하게 되었다. 방생은 생명의 유기적 관계를 역설하는 연기론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불교의 자비사상에 그 근거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불살생계와 맞닿아 있는 방생은 업중간 살생에 대한 상대적인 보상으로 착안된 것으로 보이며 자신의 마음속에 자비심을 길러주고 또 실질적으로 죽어가는 생명을 놓아줌으로써 대의적으로는 생명 증진 운동의 일환이 되기도 할 것이다.

방생은 단순히 물고기를 놓아주는 행위가 아니라 방생대상의 생명들을 향하여 보리심을 발하여 필경 극락세계에 태어나라'고 하는 축원의 마음을 담겨 되어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날 방생에서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이제 우리는 방생의 형태를 개혁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현실적인 생명 사랑의 운동으로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은 곧 봉사정신, 이웃사랑의 정신, 자연환경 존중의 정신의 실천으로, 예를 들면 불우이웃돕기, 병자 돕기, 땅과 물 맑게 지키기, 공기를 맑게 하기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방생의 개혁과 함께 간결한 의식도 수반되어야 한다. 미꾸라지 약간을 불에 넣어 신도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의식을 하고 그것을 불에 넣어주는 오늘날 방생의 관행을 지양하고 덕목과 법력을 갖춘 법사를 초빙하여 방생에 참여한 불자들이 자비심을 일으키고 선근공덕과 지혜를 증장할 수 있도록 법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실상으로 측은지심을 끊어버린 마음을 방생으로 자비심을 회복토록 한다는 방생의 근본정신을 더욱 소중히 하고 방생의 형태나 의식을 현실에 맞게 과감히 개선한다면 그것은 적극적인 포교의 실천이 될 것이며 진정한 요익중생의 길이 되리라 믿는다.

신심있는 기도로 불보살님의 가피를!

월간 『법공양』에 절찬리 연재되었던 불교신학연구원 김현준 원장의

천하 · 천하 · 천하

창회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일입니다. 곧 '나'의 참된 행복을 위하여 맺힌 것을 풀고 풀 것을 더욱 원만하게 이끌어 가는 모범이 참회인 것입니다.

목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때, 이기적인 '나'를 비우고 무조건 참회해 보십시오. 진심으로 참회하고 기꺼이 받고자 할 때 모든 것은 풀립니다.

부디 정성스런 참회를 통하여 불보살님의 자비광명 속으로 들어가는 문턱을 뛰어 보십시오. 기꺼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행복은 언제나 '나'의 곁에 있습니다.

4x6판 / 값 3,500원

- Ⅰ 업장과 참회
- Ⅱ 가까운 이를 향한 참회
- Ⅲ 절을 통한 참회
- Ⅳ 참회염불
- Ⅴ 참회행자의 마음가짐
- Ⅵ 이참법과 대승유점참회

올바른 관음기도를 위한 길잡이

행복한 삶을 이루게 하는 관음신앙 관음기도법

김현준 지음 / 4x6판 / 값 3,500원

중생의 모든 고통을 없애 행복을 안겨주는 관세음보살. 때문에 불자들은 관세음보살을 가장 많이 신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음보살의 구원능력과 자비의 참뜻, 관음관법과 관음기도법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관세음보살의 자비광명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책에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관세음보살의 근본 원력과 구원능력, 관음관법과 관음기도법이 상세히 실려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행하는 기도는 올바른 결실을 가져다 주는 법! 부디 이 책을 참고로 관음의 자비 속에서 소원을 성취하고 행복의 문을 열기 바랍니다.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시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일타크스님의 생활속의 기도법

4x6판 / 값 3,500원

불교계 최대의 베스트셀러!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크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소원성취를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생활 속의 기도법』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52가지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불교출판계의 스테디셀러, 『기도』 신드롬을 일으켰던 바로 그 책!



일타크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5,000원

일타크스님께서는 자신과 도반·선배·제자·신도들이 직접 체험한 기도성취 영험담들을 모아 이 책을 간행하였습니다. 총 6장 52편의 다양한 이야기로 엮어진 이 책을 읽다보면 기도를 통해 틀림없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을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되고, 이야기 끝에 붙인 크스님의 해설을 통하여 올바른 기도법과 함께 기도성취의 지름길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남국선원장 해국스님이 살기쉽고 재미있게 엮은

천수경 천수신앙

신국판 / 값 5,000원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독송하는 천수경! 심오한 뜻을 알고 기도하면 성취가 빠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비와 관세음보살님께서 깨친 진리를 문자로 표현한 천수경! 그 가르침을 '나'의 것으로 만든다면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와 위신력이 언제나 함께하고, 능히 심중의 소원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전화 : (02) 587-6612 · 팩스 : (02) 586-9078